

데스크시각



송기동 문화2부장·편집부국장

“33년 만이네요. 전율이 옵니다.” 지난 2018년 여름, ‘나무 심는 출판인’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조상호 나남출판 회장을 인터뷰할 때 말이다. 장흥태생인 조 회장은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 내 사육을 찾아간 기자를 반기며 33년 전 ‘인연’을 얘기했다. 알고 보니 당시 출판업에 뛰어들(1985년) 지 6년째였던 조 회장은 신생 잡지였던 월간 ‘예향’ 통권 4호(1985년 1월호)에 칼럼을 게재했었다. 제목은 ‘아누스의 두 얼굴… 출판문화’. 책을 펴내면서 겪는 ‘문화’와 ‘경영’이라는 양면성을 어떻게 상호 보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다룬 내용이었다. 이후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터넷 등장과 독서 문화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은 나남 브랜드를 확립하며 출판계에 굳건한 뿌리를 내렸다. 월간 ‘예향’ 역시 정글 같은 잡지 시장 속에서 제 색깔을 잃지 않고 살아남았다. 월

통권 300호, ‘예향’(藝鄉)의 역사를 만들다

간 ‘예향’이 오는 30일 통권 300호 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984년 9월 15일자로 창간호를 펴낸 지 36년 만이다. IMF 경제 한파로 인해 2002년 2월호(209호)를 끝으로 발행을 중단했다가 2013년 4월호(210호)로 복간하기까지 공백기 11년 2개월을 제외하면 꼭 25년 만의 일이다. 지역에서 만드는 문화 예술 잡지로서는 처음이다.

창간 이후 25년 만의 성과

“그동안 ‘예술의 고장’(藝鄉)임을 자처해 온 우리들에게 그러한 긍지를 가꾸고 또 일구어 나갈 마땅한 ‘자리’ 하나 없었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광주일보는 우리 모두의 목마름을 씻어주고 또 우리의 다정한 인간정신을 더불어 살려 나가기 위한 갈망에 부응하고자 ‘전라도 사람의 잡지’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창간호에 실린 ‘월간 예향을 펴내면서’라는 글은 잡지의 지향점을 잘 보여준다. 민중사학자이이화(1937-2020) 선생은 창간 특집(전라도·전라도사람들)에서 ‘칼과 거문고의 두 극단(極端)’이란 글을 통해 전라도 정신의 상징으로 ‘칼’과 ‘거문고’를 꼽기도 했다. 선생은 ‘칼

과 거문고의 두 극단은 저항과 풍류, 그리고 내면의 승화로 서로 어우러져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다’라고 설파했다. 잡지 ‘예향’은 그러한 전라도 정신을 바탕으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민속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발굴해 독자들에게 선보였다. 복간한 ‘예향’은 기존 콘셉트(concept)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성과 국제성을 가미한 ‘글로벌’(Global+Local) 문화 예술 전문 잡지로 새롭게 출발했다. 기금 취재를 하다 보면 부모님이 보시던 ‘예향’을 얘기하는 중견 예술인들을 만나게 된다. 수십 년의 시간을 훌쩍 건너뛴 인연으로 과거 ‘예향’과 현재 ‘예향’이 자연스레 연결되기도 한다. 패션 디자이너인 이광희(사)희망의 망고나무 대표가 그러한 경우이다. “제 어머니가 ‘예향’에 실린 것 아세요?” 이 대표는 2017년 여름,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바쁜 가운데서도 흔쾌히 시간을 내주었는데, 오래전 ‘예향’과의 인연 때문이라 했다. 그 인연이란, ‘예향’ 창간 10주년을인 1994년 10월호 ‘전라도 여인들’ 시리즈에 첫 번째로 이 대표의 어머니인 김수덕 여사가 소개된 것이었다. ‘해남의 성자’로 불린 부군 이준목 목사를 내조하며 많은 고아들을 돌보는 등 평생 사회 봉사 활동을 펼치신 분이이다.

이 대표 역시 부모로부터 이 같은 ‘사랑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는지 아프리카 남수단의 기아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망고나무를 심는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와 딸의 ‘나눔·봉사의 철학’이 24년의 시차를 두고 ‘예향’에 계재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 한 사람의 연간 독서량은 6.1권이다. 반면 일상생활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환경에서 매달 나오는 종이 잡지를 직접 구입해서 읽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많은 잡지들이 ‘문화’와 ‘경영’의 양면성에서 고전하며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독자와의 소통이 생명력

어느덧 300호 발간을 앞두고 있는 월간 ‘예향’의 생명력은 독자와의 소통과 교감에서 비롯됐다. ‘예향’은 광주·전남 나아가 한국의 새로운 문화 예술의 꽃을 피우는 자양분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독자들에게 ‘살림’과 ‘웃음’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갖춘 잡지가 될 수 있도록 분발할 것을 다짐한다. 아울러 독자들의 많은 성원과 질책을 바란다. /song@kwangju.co.kr

은펜칼럼

학교 풍경



김진구 일신중 교장

설마 이렇게까지 될지 예상하지 못했다. 학생과 교사가 민낯으로 얼굴 한번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채 1학기가 지나가고, 조금 나아지려나 했더니 2학기 개학도 학생 없이 시작했다. 1학년 학생들은 지금도 신입생 같은 느낌이 든다. 초·중등 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올해 신입생들은 친구 한 명 새로 사귀지 못하고 기울어 왔다. 학생들이 없는 운동장은 가장자리부터 잡초들이 스펀지처럼 자라더니 풀밭처럼 되었다. 풀을 사서 뽑아 내도 금방 수북하다. 축구화 스파이크 자국 대신 장맛비에 흠이 생겼다. 늘어난 고양이들이 경계심 없이 교정을 오간다. 팔짱을 끼고 쳐다보고 있으면 참 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변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득바득했던 일들도 지나고 보면 어찌되지 않을까 싶다. 시·구청에서 만든 희망 일자리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학교 일손을 거들고자 오신다. 화장실 청소 시니어 클럽(6명, 3명씩 격일제), 복도 화단 깔끔이(8명, 4명씩 격일제), 학교 방역 보건 지킴이(2명), 여기에 학교 앞 교통 봉사자까지 하면 20명이 넘는다. 지금 학교 안팎의 또 다른 모습이다.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지난 1월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4월 초순까지 28일간은 휴업일이었고, 4월 9일부터 지금까지 실시한 원격 수업은 55일이었다.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한 기간은 43일이었으나 이것도 전 학년이 등교한 것은 딱 16일이었다. 미술실, 음악실을 비롯한 모든 특별실에는 붉은 사선의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고, 식수대도 사용 금지다. 수학여행, 수련 활동, 체험 활동 등 단체 활동이 중지됐다. 학교 행사 중에서 가장 기다리는 체육 대회는 취소되었고, 2학기 학교 축제도 식여가고 있다. 원격과 등교를 반복하면서 모든 학생, 교직원들은 단일 출입로를 통해 열화상 카메라에 비친 자화상

을 마주하고 체온의 안심 수치를 확인하면서 일과를 시작한다. 마스크를 쓴 체온측정하는 수업을 하지만 그래도 대면 수업이 있는 날은 반갑다. 비상 연락망이나 공문을 통해 등교 중지가 내려지면 선생님들은 출근하자마자 e-학습터를 열고, 시간표대로 수업 내용이 탑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자가 진단과 조회, 학습터 출석 등을 체크하고 전날 학습을 다하지 못했거나 연락이 없는 학생에게 카톡, 전화, 문자를 한다. 계속 소통이 안 되면 부모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남긴다. 휴대전화나 모니터를 보고 있는 학년실의 모습은 콜센터 사무실 같다. 시간표에 따라 수업이 시작되면 교실로 옮겨 실시간 쌍방 수업하는 선생님, 학습 관련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선생님, 원격 학습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동영상 편집하거나 외부 자료를 검색하는 선생님. 걸음을 재촉하는 시작중도, 마무리 끝중 소리가 들리지 않고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선생님들은 각 실에 머문다. 점심 시간, 학생이 없는 급식실에서 교직원 점심 풍경은 사람 공양처럼 고요하다. 마주하지 않고 일제히 한 방향으로

등성등성 앉는다. 투명 플라스틱 자에 갇혀 소리 없는 점성이 반복되고 있다. 오후 종례 전에 수강률이 떨어진 학생들을 확인해서 연락하고, 다음날 각 교과 학습 콘텐츠 탑재 상황을 살펴면서 하루를 마감하지만 선생님의 휴대폰은 밤에도 잠들지 못한다. 원격 수업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지만 선생님에 따라, 과목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가정에서는 자녀 간의 수업이 비교되고, 학부모 만남에서는 학교 간의 수업이 도마에 오른다. 지난 1학기에 지필 고사를 한 번 치렀다. 몇 교과 선생님들께 성적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와 비교해 5-10점 떨어졌다고 한다. 상위권 학생의 성적은 변화가 없고 중하위권의 성적 하락이 크다는 것이다. 경제든 성적이든 건강이든 위기 상황이 오면 어려운 학생이나 가정이 더 취약해지고 수렁에 빠진다. 졸업 앨범에 들어갈 단체 활동 사진이 없어 1·2학년 때 찍은 사진을 찾고 있다. 앨범이 창궐하여 모든 학교가 문 닫기를 반복하는 이 시기를 훑아 우리 교육사는 어떻게 기록할까. 인류는 한 장의 형조 조각을 붙인 마스크 맨으로 돌아가는가.

기고

학교 시설 감리 제도 투명하게 운영해야



강현우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건축사회장

좋은 교육 환경은 올바르게 훌륭한 학생들을 키워 내는 데 있어서 필요충분조건 중 하나다. 그런 까닭에 교육 선진국이라 불리는 핀란드나 독일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학교 시설 개선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도 학생수 급감에 따른 학교 공간 혁신 방안 수립과 각 구역별 학생수에 따른 적정 규모의 학교 시설 신축과 증축, 그리고 교실 환경 개선 공사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건축사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학교 시설 사업 전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 사업에 대한 감리 업무를 그 산하에 설치된 학교 시설 감리단이 직접 수행하

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광주시의회 이홍일 의원이 지난 2018년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에서 “2016년~2018년 시설 공사 15건을 분석한 결과, 준공된 지 1~2년 사이에 28건의 하자가 발생한 부실 공사였다”고 밝히고 “다수의 하자가 발생한 것은 공사 감리를 외부 감리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 감리로 실시해 바뀌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며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는 발주자와 감리자가 동일한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나아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점도 도려했다고 있다.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오래전에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심지어 민간 공사는 부실 감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처 및 계열사가 감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안전감리원 제도의 도입과 상주감리 대상의 확대가 예고되었으며,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다수의 행정 기관에서는 시민 감리단 운영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감리단을 운영하고 있는 시·도는 광주, 전남, 경남 교육청뿐으로 그 외는 감리 업무를 외부 용역으로 발주하여 감리 조직 운영에 따른 고정적인 운영비를 없애고, 업무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기반을 다짐과 동시에 외부 발주를 통해 지역 건축 경기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이에 전남교육청도 조만간 감리 용역을 외부로 발주하는 개선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광주시교육청도 발주처와 설계 건축사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 용역을 외부에 별도로 발주하여야 한다.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다. 각종 학교 시설 공사 용역 입찰 시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공고가 적지 않다. 국가에서 정해 놓은 업무에 따른 대가 기준 대신 교육청 자체 대가를 산정해 적용하거나, 공사 변경에 따른 추가된 용역비의 미지급 사례도 빈번하다. 또한 시설 보수 공사에 대한 저가 수주 요구 및 공고를 하는 등 불합리한 용역 입찰 진행은 가격이나 어려운 건축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건축·건설 산업

군의 경기 부양을 가로막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공사의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가 된다. 우리 광주시건축사협회에서는 올해 초 광주시교육청에 자체 감리단의 운영 중지와 학교 시설 입찰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여러 번 제기하고, 장황국 교육국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지만 결국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학교 공간 혁신을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3년까지 교실 단위 공간 혁신(1250개 교)과 학교 단위의 공간 혁신(600개 교) 사업을 지원한다. ‘학교 시설 환경 개선 5개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노후 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학교와 위험·위해 요소 없는 안전한 학교, 미래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혁신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두고 정책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현 정부의 교육 정책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장황국 교육감은 이 목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사들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의 협조가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社說

이번 추석엔 고향 방문 자제하는 게 좋겠다

“아들, 며늘아~. 이번 추석 차례는 우리가 알아서 지내마. 내려올 생각 말고 영상통화로 만나자.” 완도 지역 거리 곳곳에는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보성군 득량면에도 “아들, 딸, 며느리야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와도 된당께~”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걸렸다. 시아 버지와 시어머니 일들이 내건 펼침막에는 고향 방문을 놓고 아들보다 더 깊은 고민에 빠질 며느리를 향한 따뜻한 마음 씀씀이가 녹아 있다. 코로나로 인한 ‘따뜻한 거리 두기’라 하겠다. “애들아. 이번 별초는 아부지가 한다. 너희는 오지 말고 편히 쉬어라 잉~.” 추석예를 앞두고 완도·보성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이 같은 구수한 사투리의 현수막이 걸렸다. “아빠! 추석에 코로나 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가정에서는 자녀 간의 수업이 비교되고, 학부모 만남에서는 학교 간의 수업이 도마에 오른다.” “반가운 아들·며느리! 고향 앞으로” 등

등의 환영 문구는 올해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고향 방문 자제를 촉구하는 문구의 현수막이 대신 내걸린 것이다. 지자체들 역시 코로나 확산을 막고자 귀성 자제를 독려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 지사도 호소문을 통해 “추석 연휴 전국적인 대이동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민중 최대 병철에 이동 자제를 권고하는 것이 어렵고 안타깝지만, 이번 추석만큼은 나와 우리 가족과 친지의 안전을 위해 집에서 쉬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로 인해 형제나 친척들이 한자리에 앉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세상이 됐다. 하지만 부모와 가족·친지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가능한 한 이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중국도 ‘출절 대이동’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도화선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다.

명절은 다가오는데 치솟는 물가 어떡하나

추석을 보름 앞두고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 가계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불철에 냉해를 입은 데다 장마와 태풍으로 작황이 부진한 과일과 채소 가격이 치솟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주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전통시장 소매 기준 배추와 무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140.8%, 87.3% 급등했다. 이어 밤(27.1%)과 복어(23.1%), 달걀(18%), 동태포(14.5%), 약과(12.1%), 사과(11.9%)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같은 가격 상승세는 추석 성수기(17~30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축산물 수급 여건이 지난해보다 악화돼 상당수 품목의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흥로 사과 상품(上品) 5kg 한 상자당 평균 도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56.1% 오른 3만 6000~4만 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배

역시 출하량 감소로 신고매 상품 7.5kg 한 상자당 34.2% 오른 3만~3만 3000원이 책정될 전망이다. 한우와 달걀의 가격도 올라갈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추석 상차림 비용도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가격 조사 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엇그제 이번 추석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 기준 27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6.5%, 대형마트는 40만 4730원으로 24.7%나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의 물가 불안은 기상 악재가 겹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어찌 됐든 코로나 사태로 가뜰이나 힘든 상황에서 농민들은 수확량 감소로, 상인들은 판매 부진으로,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으로 저마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비축 물량을 이용한 적극적인 수급 조절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우울감과 분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내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강력한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언제 끝날지 모른 채 마냥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나 무기력 또는 불안감에서 오는 우울 증상을 ‘코로나 블루’(corona blue)라 한다.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코로나 레드’(corona red)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그만큼 코로나 나로대인관계가 줄어들고 등 사회적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찾아온 일상의 변화와 함께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특히 왕성한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취업의 어려움과 줄어든 대인관계로 이러한 증상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올해 상반기 20대와 30대 우울증 진료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28.3%, 14.7%가 늘었다. 특히 우울증 등을 견디지 못하고 고의적 자해로 인해 병원을 찾는 20대와 30대도 크게 늘었는데, 올해

상반기 고의적 자해로 진료를 받은 20대는 213건으로 지난해 118건에 비해 80.5%나 증가했다. 30대도 161건으로 전년 86건에 비해 87.2%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병명 분류를 위해 파악한 수치는 최소 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청년층의 자해 건수와 우울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접하는 대부분의 뉴스마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겨 주고 분노감을 자아내고 있으니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 의료계 파업에 이어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정치권의 계위축되면서 찾아온 일상의 변화와 함께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특히 왕성한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취업의 어려움과 줄어든 대인관계로 이러한 증상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올해 상반기 20대와 30대 우울증 진료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28.3%, 14.7%가 늘었다. 특히 우울증 등을 견디지 못하고 고의적 자해로 인해 병원을 찾는 20대와 30대도 크게 늘었는데, 올해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월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국문(국문 신형 배달 안함)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남본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체육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